

3/10(수) 롯기 묵상 5

롯기 2:8-1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롯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롯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면서 그녀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주게 됩니다.

롯이 받은 호의

보아스가 롯을 알아보고 그녀를 ‘딸’이라고 호칭하게 됩니다(8절,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는 보아스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한 보아스가 이미 롯에 대한 소문을 통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여러가지 호의를 베풀어주게 됩니다. 첫째로,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고 그의 소녀들과 함께 일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8절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추수하는 자들의 바로 뒤를 따르면서 베어 놓은 줄기를 단으로 묶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 때 떨어지는 이삭을 마음껏 줍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둘째로, 소녀들에게 롯을 함부러 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롯이 원할 때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룻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주로 하층민에 속했기 때문에 일하는 소년들이 롯을 쉽게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아스는 미연에 방지를 했고 또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하루 종일 물 걱정 없이 일하도록 롯의 편의를 봐주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식사할 때에 보아스는 롯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러한 호의는 보아스가 롯을 단지 하나의 일꾼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극진히 존중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소년들이 일하는 곡식 단 사이에서 일하게 하고 조금씩 곡식을 뽑아 주라고 명하였습니다(15-16절, “..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밭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곡식 단 사이’라는 것은 곡식 단들이 세워져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언급한대로 소녀들이 곡식을 단으로 묶는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묶은 단사이에서 롯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말며 곡식을 일부러 떼어 내주라는 것입니다. 롯은 일하러 간 첫 날부터 보아스를 만나 이처럼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신기함과 더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롯에 대한 평가

보아스가 처음 만난 롯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그 이유는 보아스가 롯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1-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는 베들레헴 성읍 전체가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온 룻에 대한 좋은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보여준 호의에 대한 룻의 행동은 소문대로 그녀의 겸손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온 것과 같이 고향 땅을 떠나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그의 하나님을 따라온 룻을 지켜주시고 상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13절). 보아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룻의 행동을 다 보셨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마 6:3-4,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과 같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마 25:40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아랫 사람이나 손님 일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고 유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얀마를 위한 기도: 구테타로 인해 발생한 미얀마 사태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국제 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